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시작

-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해소 지원 위해 4월 25일부터 선제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4월 25일(금)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이하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피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문상담센터 ‘관세119’ 운영),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 규제, 임상시험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산업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설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출 규제 및 관세 장벽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통상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 (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 (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최대시장인 미국의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기업들의 불안감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바이오헬스 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개요

담당 부서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오창현 (044-202-2960)
		담당자	사무관	조영기 (044-202-2961)
관련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조정실 수출지원팀	책임자	실 장	장진영 (043-713-8301)
		담당자	팀 장	이동원 (043-713-8550)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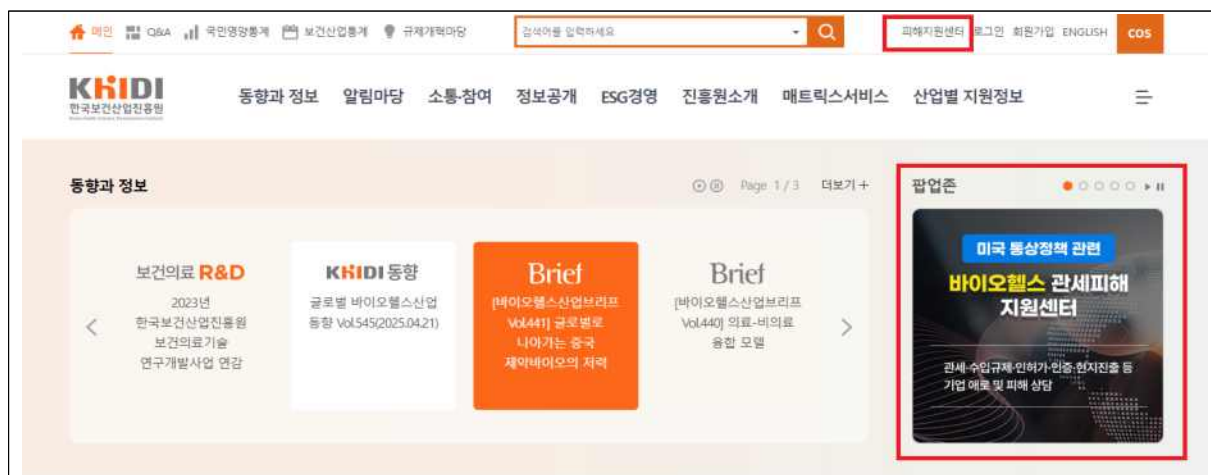
- (필요성) 美 통상정책 강화에 따른 국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기업 지원 등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제약·의료기기·화장품 對美수출 관련 국내 피해기업
- (기능) ① 피해사례 접수 및 맞춤형 정보제공(4.25~) ② 美 통상정책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③ 민·관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④ 바이오헬스 특화 전문가 그룹 운영 등

※ ②~④ 美 통상정책 강화에 따라 단계적 기능 확대

□ 추진방안

- (개소일) '25.4.25(금)
- (접수채널) 이메일 tariff@khidi.or.kr, 대표전화 ☎ 043-713-8551

<바이오헬스 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온라인 배너 배치(안)>



- (홍보) 온라인 배너(복지부·진흥원·관련 협회 홈페이지)
- (운영체계) 범정부협력체계 연계 운영

■ 진흥원
바이오헬스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신고접수(온·오프라인)



■ 범정부 협력체계
- (KOTRA) 관세대응 119
-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